

# '이건희 컬렉션' 2만여점, 국민 품으로

삼성 일가 상속세 납부·사회 공헌 계획 발표 따라 고미술품·세계적 서양화·국내 유명작가 작품 등 기증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 및 사회 공헌 계획 발표에 따라 미술품 애호가로 알려진 고(故) 이건희 회장이 평생 수집했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도 국민들 곁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기증은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해 국민들과 함께 향유해야 한다는 고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28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회장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및 사회 공헌 계획에는 이 회장 소유의 미술품 기증 계획도 포함됐다.

이번 기증 대상에는 고미술품과 세계적인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작가의 근대미술 작품 등 총 1만1,000여건, 2만3,000여점이 포함됐다.

특히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한 미술품에는 국보 등 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됐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 고려 불화 '전수관음 보살도'(보물 2015호) 등 국보가 14건, 보물이 46건으로 지정문화재가 60건이다.

또 국내에 유일한 문화재나 최고(最古) 유물과 고서, 고지도 등 개인이 소장한 고미술품 2만1,600여점도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근대 미술품 1600여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할 예정이다.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이중섭의 '황소', 장욱진의 '소녀나룻배' 등 우리나라 근대미술 대표작가들의 작품 및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작가들의 미술품과 드로잉 등이 포함됐다.

한국 근대미술에 큰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작품 중 일부의 경우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작가 연구지의 지방 자치단체 미술관과 이증삼미술관, 박수근미술관 등 작가 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해의 유명 작가들의 소장품도 기증 내용에 포함됐다.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을 비롯해 샤갈, 피카소, 르누아르, 고갱, 피사로 등의 작품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다.

지정문화재 등이 이같이 대규모로 국가에 기증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내 문화자산 보존은 물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 및 미술사 연구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라는 게 삼성 측의 입장이다.

특히 수집과 기증 과정 자체가 기업가이면서 동시에 예술애호가이자 사회사업가이기도 했던 고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2004년 리움미술관 개관식에서 "비록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이는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건희 컬렉션'에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해 국내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게 삼성 측의

전언이다. 특히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를 비롯해 '금동보살삼존상',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등 가치를 헤아리기 어려운 미술품이 기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미술계에서는 이번에 기증될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가치가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문화적인 가치나 금전적인 가치 등에서 전례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국내외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를 모아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특히 대규모 지정문화재의 국가 기증은 이번이 최초로서 국내 문화자산 보호는 물론 미술사 연구와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 수상자 발표

총 352편 작품 접수... 박근형 씨 대상 수상

제4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에서 박근형(전북 전주시 30세)씨가 대상(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수상작은 박혜영 작가의 '비밀 정원'을 소재로 한 '비밀 정원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이다.



박근형(대상)



김해광(우수상)



황혜림(우수상)

이에 따르면 박 씨의 감상문은 작품의 서사 구조를 해체한 후 인물의 관계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독서법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의 이음매가 거슬리지 않을 만큼 정교했다. 특히 그는 "비밀정원"을 여러 번 탐독하면서 작품 속 섬세하고도 공들인 문장들은 글을 쓰는 데 있어 애정과 다정함의 지점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수상은 김해광(경북 경산시 30세)씨의 '죽음과 생명, 고향과 기억의 향기'와 황혜림(경기 평택시 25세)씨의 '패하지 않을 때

자의 서'가 차지했다. 공모전은 모두 352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올해는 전북 지역 참가자가 45%로 유달리 많았다. 참가자 나이는 11세 초등학생부터 83세까지 더 다양해졌다.

심사는 김근혜·김영주·이경옥(동화작가), 김미영(영화평론가), 김현수(시인), 오은숙(소설가), 정혜인(교열교정가), 최기우(극작가) 등 문학과 학계 및 관련 전문자들이 맡았다.

/장은성 기자

## '공감-공유' 유기종 개인전 개최

gallery숨서 5월 3~15일까지

gallery숨에서 전시공간지원기획 '공감-공유' 유기종 개인전이 5월 3일~15일까지 열린다. 유 작가에 따르면 일상의 사소한 사물에도 들어내지 못한 숨은 내력이 있었다.

우리 내 삶과 관계를 맺은 사연이 화석처럼 박혀 있어, 피사체의 단면만을 소비하는 것은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물과 내면은 내 감성의 자극이며 영감을 찾는 과정이다.

난 사물에 퇴적된 사연을 들추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

피사체의 복제를 넘어 그 내력의 퇴적된 사연에서 난 다음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다.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나에게 세월의 손때 묻은 사물은 항상 날 잡아당겼다.

난 영문도 모른 채 그 형질의 느낌과 분위기에 내 감정을 따라갔다.

그런 사물과 내면은 그 표면적 요소만이 사물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

사물과의 관계에 내재하였던 추억을 사색하며 난 다음의 관계를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물은 내 감정과 사고가 자유롭게 시공간을 넘나들게 했고, 사물의 과거가 된 내력은 날 현재의 직면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힘을 주고 있다.

내 삶과 함께했던 사물의 내력에 내가 있었고, 내가 나에게 길을 찾게 하는 실체였다.

인간 삶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수많은 사물에도 그 숨은 내력이 있었다. 사물의 내력은 날 잡아당겨 안아주고 있다. 손가락의 따뜻함과 서러움은 어긋나는 듯 언제나 맞닿아 있다.

밥상 위에 놓인 손가락이 많아 주린 배를 달래야 했어도 결코 하나의 손가락을 뺄 수는 없었던 기억, 그 손가락은 꽃으로 피어난다.

원석에서 조각난 것은 돌맹이에 불과하다. 그 형태가 파괴되고 쓸모가 없어 이리저리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돌맹이!

주거의 경계를 두어 안과 밖을 이룰 때나 서로 다른 공간의 형태를 갖춘 때 답을 씹는다.

담의 견고함을 위해 가장 밑바닥에서 혹은, 가장 후미진 곳에서 돌맹이는 골뎀이 되고 드러나지 않아도 그 희생은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골뎀과 손가락이 도구로 낱날 것인지 아름다운 꽃으로 필 것인지 그 간격 안에 인생이 있다.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고 성스러움과 속됨의 간격이기도 하다.

한편, 유기종 작가는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장은성 기자

## '김영임&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 부안서 공연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단체 우수공연' 김영임&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 작품에 공모 선정되어 기금 3,288만원을 지원받는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부안군이 주최, 주관하며 소외지역 없이 모두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연을 펼쳐 '사람이 있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김영임&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 공연은 우리 민족의 삶과 열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장르인 국악과 트로트의 결합으로 가장 한국적이고 신명나는 공연이며,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실력과 출연진 구성으로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고품격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인다.

본 공연은 5월 7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저녁 7시 30분에 공연할 예정이며, 입장권은 1만원으로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부안예술회관 1층 관리사무실에서 현장예매를 실시 할 예정이다.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코로나 19속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연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익산 왕궁보석박물관, '가족소풍' 공연

익산 왕궁보석박물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을 위해 '가족소풍' 공연을 개최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보석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상설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2022 익산 방문의 해'를 위한 소규모 이벤트도 진행되며 익산시 관광브랜드 캐릭터인 마룡과 함께 명부기록, 1~2m 이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이번 주말에는 대형 거리인형극인 '선녀와 나무꾼' 공연이 펼쳐진다. '선녀와 나무꾼' 공연은 오후 2시, 오후 3시 총 2회·30분씩 진행된다. /익산=정왕원 기자



# 제8회 전국 품바 명인전

2021년 5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전주 풍남문 광장

- ▶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 ▶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 ▶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매일신문사

\*\*위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